



2024년 11월 10일(제1219호)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군중주보

발행 : 군중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비교는 불행의 시작”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시는 모든 평신도를 응원하면서 평신도가 교회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직자가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주제로 군중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상황은 종교 예식 중 헌금함에 봉헌을 하는 중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봉헌을 했을 것이고, 성경은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과부가 넣은 렵톤 두 닢을 보시고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많은 돈을 넣은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해 봅시다.

저는 많은 이들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비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교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의 어떤 것을 견주어 보는 것을 말하죠. 아마 오늘날 인류 사회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끊임없는 비교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며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지려는 것은 인간의 욕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선 비교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죠.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교’를 통해서 남에게 질투의 마음을 느끼게 되거나,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모습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알맹이는 썩어있는 과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의 알맹이는 지금 어떤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윤대성(사제사요직) 신부
청룡오리성(해병대 제2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1열왕 17,10-16
- 회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제 2 독 시 히브 9,24-28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 음 마르 12,38-44
- 영 성 제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여덟 번째 시

천주교 국가의 군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많은 영혼들의 안타깝고 참혹한 처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체없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마련해 주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한 번만 공식으로 우리 조선 정부에 대해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믿을 신앙의 자유를 주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경고문을 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 조정에서 이 요구를 감히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마음이 달려 있고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더욱 강하고 더욱 감미롭게 인도하시는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부님의 서원과 기도를 끊임없이 이 목적으로 지향하여 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신부님의 열정과 진정한 호의를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좋으신 신부님께 미사 중에 허약하다고 소문이 퍼진 친구와 아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도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결코 빠뜨리지 않고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보내드리는 서한을 동봉하오니 읽어 보시고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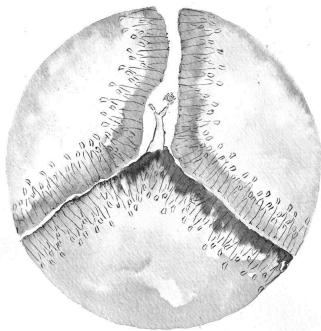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사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간절함이 모여



여기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마음들이,
그 정성 정성들이,
하나둘 모여.

여기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가난한 과부



제임스 티소(James Tissot, 1836년 ~ 1902년) / 1886년경 제작
수채화 18.3x28.1cm / 브루클린 미술관, 미국

수채화 작품으로 윤곽이나 색감이 확실하진 않으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감정들이 잘 드러나,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왼편에 앉아 있는 세 명 중 중앙의 흰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작품의 전경에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손으로 지칭하고 계신다.

작품의 제목으로 보아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그린 작품으로 보이는데, 여인 뒤편에는 벽 쪽에 있는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림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필품을 모두 더 넣었기 때문이다.” (마르 12,41-44)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오뚜기 오형준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례오(특전사)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10일(주일)

- 제26회 한일주교교류모임

때·곳: 11월 12일(화) ~ 14일(목),
광주대교구 목포 한국레지오마리아 기념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상회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